

『무정』 판본에 관한 서지적 고찰*

— 새로 발굴된 『무정』 초판본을 중심으로 —

이 만 영**

요약

『무정』이 단행본으로 발간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간 표지 및 장정(裝幀)을 온전히 갖춘 『무정』 초판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문학을 기술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려대 도서관을 통해 1918년 발간 당시의 책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무정』 초판본이 공개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비로소 표지 및 장정까지 갖춘 『무정』의 판본 전체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새 자료 『무정』 초판본에 관한 고찰을 시도했다. 이번 에 공개된 자료는 기존에 공개되었던 초판본(한국현대문학관 소장본, 태영사 영인본)과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존 자료와

* 먼저, 이 논문을 집필함에 있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고려대 도서관에서 공개한 이광수의 『무정』 초판본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 측에서 공개한 자료는 고려대 교육대학원 출신인 유덕웅 선생님께서 기증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 이후 필자는 도서관 한적실의 한민섭 선생님 배려 덕택에 이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섭 선생님께서 필자에게 초판본의 표지 장정을 직접 만져보고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본에 관한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한민섭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동료 연구자 박성호 선생 덕택이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한민섭 선생님과 만남을 중재해주으로써, 필자에게 새로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글은 세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발표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판본 자료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해준 이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달리 표지 장정 및 책등의 상태가 양호해 발간되었을 당시의 책 외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초판본의 제책 상태가 재판본의 제책 상태와 거의 흡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 자료와 달리 판권지에 ‘東文館’(전북 전주 소재)이라는 서적 발매소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무정』 초판본이 어떤 경로로 지방으로까지 유통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하고, 『개벽』과 『창조』 등의 추가 자료를 통해 東文館이 어떠한 성격의 서점이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참조·보강하여 『무정』의 판권 변동사항 및 각 판본의 소장처 등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정』의 발간 경위에 관해 간간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 즉 『무정』을 비롯한 이광수의 저작이 1920년대 초반 興文堂書店에서 집중적으로 발간되게 된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하여 그 이유가 허영숙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이광수, 『무정』 초판본, 고려대 도서관, 東文館, 홍문당서점, 허영숙

목차

1. 서론
2. 『무정』 초판본과 그 유통 경로
3. 『무정』의 판권 변동사항과 그 의미
4. 결론

1. 서론

프랑스 문학사회학자 에스카르피는 “모든 문학실상은 작가와 책과 독자를 전제로 한다.”¹⁾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당대의 문학적 실상을

1) R. Escarpit,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민병덕 역, 『출판·문학의 사회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의 작가’, ‘교환의 대상으로서의 책’, ‘소비자로서의 독자’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바, 문학 연구가 단순히 문학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근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문학 텍스트의 영향력은 단순히 작가의 창조적 의지만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책’이 작가와 독자를 매개할 수 있는 교환의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 또한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작품을 향유할 수 있을 만한 제반 여건—이를테면 교육제도의 형성이나 문맹률 변화 등—이 마련될 때, 그 작품은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만큼이나 ‘생산 - 출판 및 유통 - 수용’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 근대소설 연구에 있어서 작가에 대한 전기적 분석 방법 내지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분석 방법이 고유한 문학 연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 및 유통시장에 관한 연구와 독자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들도 이제는 제법 두툼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²⁾ 이광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유

학』, 일진사, 1999, 9면.

- 2)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한국 근대소설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가에 관한 전기적 분석이나 소설 텍스트에 관한 분석이 여전히 전통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① 출판 유통 환경의 변화와 근대소설의 상관성을 논의한 연구, ② 근대소설의 창작 과정을 근대적 독자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 등으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①에 관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한기형과 김영민 등에 의해 촉발되었다. 한기형은 1910년대 단행본으로 출간된 신소설을 목록화하여 당대 신소설이 어떻게 출간되고 유통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김영민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소설의 문체와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최근에는 당대의 출판인 및 출판사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①에 관해서는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

지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정』에 관한 논의에 한정해볼 때, 기존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판본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상당수 제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철·김종수·박진영·최주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철은 『바로잡은 『무정』』의 해제를 통해서 『무정』의 아홉 가지 판본을 정리한 바 있다.³⁾ 그는 매일신보 연재본이 『무정』의 정본임을 강조하면서, 연재본을 비롯한 여덟 가지 판본의 차이를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이는 서지학적 의미에서 고투의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① 식민지 시기 이전의 판본을 초판본(1918.7)과 6판본(1925.12)으로 한정하여 논의했다는 점, ② 한국현대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판본을 6판본이라고 서술한 점 등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김종수는 식민지기에 발행된 이광수의 단행본 목록을 모두 정리하고, 문학

국학보』 22권 3호, 일지사, 1996;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5,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9; 김종수, 『일제 식민지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 박문서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화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논문, 2013; 김성연, 『식민지 시기 기독교 출판과 책의 유통 - 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사이(SAI)』 18, 국제한국문화학회, 2015;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등을 참조.

다음으로 ②에 관한 연구는 천정환과 전은경 등이 주도하고 있다. 천정환은 1920~30년대 근대적 의미의 독자가 출현했던 국면을 세 개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국면인 1920년대 초에 '신문학'이 고소설과 신소설의 문화적 장악력을 급격히 해체해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천정환의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1900~1910년대 문학에 있어서 독자가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천정환, 『한국 근대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전은경, 『『대한매일민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 독자의 형성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전은경, 『잡지 『소년』의 기획과 독자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등을 참조.

3) 김철,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3.

사적 맥락에서 이광수의 작품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한 바 있다.⁴⁾ 이 연구는 식민지기의 이광수 저작이 출판·유통된 경위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광수의 저작 전반을 다루다 보니 『무정』의 판권 변동 사항에 대한 세부적 고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박진영은 1918년 초판본부터 1962년 삼중당 전집본까지 『무정』의 출판 이력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다.⁵⁾ 이 연구는 『무정』의 판권 변동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했을 뿐 아니라, 『무정』의 표지 장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더군다나 이 연구는 한국현대문학관 소장본을 6판본이라고 서술했던 김철의 오류를 최초로 수정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제출되었던 당시에는 재판·4판·5판의 소재가 불명확했던 터라, 이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주환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였다.⁶⁾ 이 연구는 식민지기 발행되었던 모든 『무정』 판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1979년에 발간된 우신사 판본의 의미와 그 한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연구는 『朝鮮思想通信』에 일본어로 연재되었던 『무정』(이수창 역) 판본 등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무정』 판본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통해 우리는 『무정』의 각 판본별 발행 주체 및 판권의 변동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가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시

4) 김종수, 『일제 식민지 근대 출판시장에서의 이광수의 위상』, 『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5) 박진영, 『『무정』이라는 책의 탄생 전후』,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6) 최주환, 『『무정』 100년의 계보를 읽는다』, 『근대서지』 13, 근대서지학회, 2016.

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성과들은 분명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간 불분명하게 언급되었던 『무정』의 서지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간 연구자들이 등한시했던 『무정』 정보에 관한 관심을 상기시켜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 판본에 관한 몇 가지의 내용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첫째, 표지 및 장정을 온전히 갖춘 초판본이 발굴되지 않았던 나머지, 『무정』 초판본의 표지 및 장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무정』이 당대 일반 대중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경성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유통되었던 과정을 살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식민지기 발간된 『무정』의 여덟 판본의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넷째, 『무정』의 여타 판본들의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된 바 있지만, 5판본과 6판본의 발행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던 흥문당서점(興文堂書店)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발굴된 『무정』 초판본을 기반으로, 그간 해명되지 않았던 위의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서지적 고찰(Bibliographical Study⁷⁾)을 시도하고자 한다.

7) 서지학(bibliography)이란 인간의 삶의 체험이나 생각을 고정하고 영속화시킨 물증, 즉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형식, 성질, 변화, 전승 등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연구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 그 우수성을 판별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定本이나 善本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열악한 텍스트들을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등 졸속적인 연구관행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는 『무정』의 각 판본의 제작 상태와 소장처, 판권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연구방법을 지향한다. 서지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탁환, 「서문」,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를 참조.

2. 『무정』 초판본과 그 유통 경로

2017년 7월 17일, 고려대 도서관에서는 표지 장정이 고스란히 담긴 『무정』 초판본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한국 근대소설이 어느 덧 상수(上壽)의 때를 맞이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1918년 발간 당시의 책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무정』 초판본을 발굴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초판본이 발굴됨에 따라 우리는 식민지기에 발간된 『무정』의 판본 전체(초판본~8판본), 더 정확히 말해 표지 장정까지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판본 전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무정』 초판본이 어디에서 발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공존·충돌해왔다. 하나는 1918년 광익서관본이 초판본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동인의 주장을 필두로 하여, 서지학자 김종욱·하동호 등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김동인은 “광익서관은 書舖다. 이전의 小說·稗史·傳記類를 펴보면 그 거의가 광익서관 발행임을 볼 수가 있다. 춘원의 『무정』과 『개척자』도 초판은 광익서관서 발행되었다.”⁸⁾고 주장했다. 그 이후, 김종욱과 하동호 등의 서지학자에 의해 1918년 7월 20일에 광익서관본 초판본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⁹⁾ 하지만 하나의 작품이 여러 출판사에서 같은 날짜에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¹⁰⁾ 현재까지 1918년 광익서관본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¹¹⁾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8) 김동인, 『文壇懷古(8)』, 『매일신보』, 1931.9.1.

9) 이에 대해서는 김종욱, 『우리는 얼마나 틀린 『무정』을 읽고 있나 (1)』, 『문학사상』 49, 1976, 366-377면; 하동호, 『한국 근대문학의 서지연구』, 깊은샘, 1981, 22면을 참조.

10) 당시의 출판 관행상 같은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는 고소설의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석순, 『근대소설의 형성과 출판의 수용미학』, 박이정, 2008, 231면을 참조.

1918년 광익서관본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얻기가 힘들다. 다른 하나는 1918년 신문관·동양서관본이 초판본이라는 주장이다.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주장은, 1985년 『무정』 초판본을 영인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을 영인한 것으로, 1985년 태영사에서 『한국현대소설총서』 시리즈로 발간되었다.¹²⁾ 이 자료는 초판본의 겉표지나 책등이 영인되지 않아 표지 장정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판권지가 온전히 영인되어 있어서 초판본의 발행일이 1918년 7월 20일이라는 점, 저작 겸 발행자가 최창선이라는 점, 발행처가 신문관·동양서원이라는 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한국현대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이 6판본이 아니라 초판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¹³⁾ 신문관·동양서관본이 초판본이라는 주장이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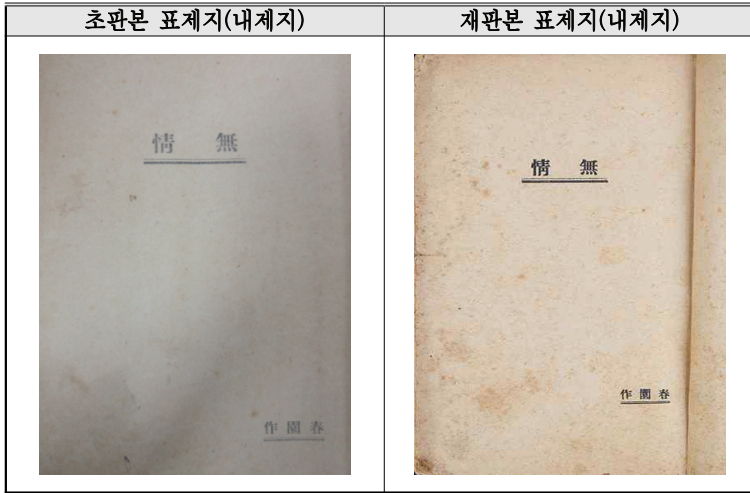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 판권지에서서도 그 발행처가 신문관·동양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기존에 공개된 초판본(한국현대문학관 소장본과 태영사 영인본)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새 자료는 표지 장정 및 책등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초판본 자료는 표지 장정이 유실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른 판본들의 표지 장정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 자

-
- 11) 현재까지 광익서관본이 실재한다는 주장이 있을 뿐, 그 실물이 전해진 바는 없다. 현재 전해지는 초판본 및 그 사본이 모두 신문관·동양서원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광익서관본이 실재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12) 태영사 편집부 편, 『한국현대소설총서 1: 무정·홍염·배회』, 태영사, 1985.
- 13) 김철은 한국현대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을 6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추후 박진영에 의해 수정되었다. 박진영, 앞의 논문, 348면.

료를 통해서 초판본이 재판본과 마찬가지로 종이 양장으로 제본되었고, 표지 장정 및 책등에 표기된 서체가 재판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래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초판본(고려대 도서관 소장)과 재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표지 장정, 표제지의 이미지를 비교한 것이다.

〈자료 1〉 『무정』 초판본(고려대 도서관 소장)과 재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비교

초판본 표지	재판본 표지
	
	



그간 공개되었던 『무정』 판본 중에서 표지 장정까지 온전히 갖춘 최고본(最古本)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재판본이다. 따라서 표지 장정이 온전히 남아 있는 초판본이 발굴되기 이전까지는, 초판본의 표지 장정이 종이 양장으로 제본되었을 가능성과 3판 및 6판과 동일한 클로스(cloth) 양장으로 제본되었을 가능성 모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¹⁴⁾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초판본을 통해 확인해본 바, 초판본의 표지 장정은 재판본의 그것과 동일하게 종이 양장으로 제본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지와 책등에 표기된 서체 또한 두 판본이 동일했다. 이로써 『무정』 초판본과 재판본은 발행처의 변화(‘신문관·동양서관’ → ‘신문관·광익서관’)만 있었을 뿐, 가격(1원 20전)·표지 장정·표지의 서체, 면수 등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새 자료의 판권지에는 ‘東文館’(전북 전주 소재)이라는

14)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진영이 언급한 바 있다. 박진영, 앞의 논문, 340-341면.

서적 발매소 고무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기존 초판본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항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초판본은 “朝鮮 全州 大和町 南門通”에 소재해 있는 東文館에서 판매되었다. 이러한 흔적은 『무정』 초판본의 유통 및 배급 경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무정』 초판이 발간·유통되었을 19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지방 독자들은 경성에서 발행되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¹⁵⁾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경로로 『무정』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책거간(冊居間)을 통해 책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선 시대 때부터 유래해온 방식으로, 이때의 책거간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도매가로 구매하여 전국 각지(특히 소매서점이 없는 지방)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했다. 이들은 주로 시골장터나 마을의 길목 등에서 좌판을 벌이거나,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법을 활용했다.¹⁶⁾ 우편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1910년대 후반부터 책거간의

〈자료 2〉 『무정』 초판본(고려대도서관 소장)의 판권지. 판권지에 찍힌 고무인 흔적을 통해, 이 책이 전주 대화정 남문통에 소재한 ‘東文館’에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5) 물론 『무정』 초판본이 발간되기 8년 전의 시점이기는 하지만, 1910년 당시에 전국 서점의 수는 대략 70여 개소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서울에 45개소, 평양에 5개소가 각각 소재해 있었고, 20여 개소는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었다. 이승우, 「개화기 출판·서적계를 가다」, 『출판저널』, 1993.10.5. 9면.
- 16) 책거간에 관한 내용은 박상균, 「개화기 ‘책거간’ 고 - 도서유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77, 116-126면을 참조.

영향력이 급격히 쇠락하기는 했지만, 1935년에도 전국에 걸쳐 1,400~1,500명 정도의 책거간이 있었다는 기록¹⁷⁾으로 보아 이들은 식민지기 전반에 걸쳐 책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무정』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시에 책거간이 유통했던 책들은 주로 옥편이나 춘향전과 같은 구서적류에 한정되었던 데다가, 근대적 출판 및 유통 방식을 지향했던 신문관이 서적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책거간을 활용했을 가능성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당시 『무정』 초판은 책거간을 통한 거래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었을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지방 독자들이 소정의 우편료와 책값을 출판사에 보내고 책을 직접 운송 받는 형태의 ‘우편물 거래 방식’이 유력한 『무정』의 유통 방식으로 거론될 수 있다. 1910년대 출판사 중에서 이러한 유통방식을 주도했던 곳은 단연 신문관이였다. 실제로 신문관에서 발행된 잡지 『소년』은 표지 바로 뒷면에 「注文規定」란을 두어 우편 판매 방법을 따로 공지해두었다.¹⁸⁾ 그런가 하면 신문관은 『청춘』의 「新文館發行書目」(이하 서목)에서 책의 할인가와 우편요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방 독자들이 우편으로 책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끔 하였다.¹⁹⁾ 「서목」에서는 이광수의 저작으로 『무정』

17) “多數한 部數가 書籍市場에 消化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들은 었든 機關을 通하여 흐터지는가 하면 오로지 시골 장터 거리에서 장터로 도라 다니는 붓씨 ㅁ 장사 一千四五百名 선으로 販賣되고 있다 한다.” -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7권 5호, 1935.6, 30면.

18) 『소년』 1호(1908.11.1.)의 속표지 뒷면에는 「注文規定」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本館에서 發行하난 圖書는 모다 前金을 要하나니 前金이 아니면 發送티 아니 하옵.

○ 送致하섯던 前金이 盡하면 發送을 停止하옵.

○ 代金은 아무쪼록 郵便換으로 送致하시되 부득이하면 一錢이나 五厘郵票를 十에 一을 加하여 送致하시옵.

과 『개척자』 두 편이 확인된다.²⁰⁾ 이 가운데 『개척자』는 ‘미출판’으로 기재되었던 반면, 『무정』은 정가와 우편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무정』은 별도의 할인 없이 1원 20전에 판매되었고, 독자들은 정가의 10%에 해당되는 12전의 우편료를 별도로 송금하면 『무정』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렇듯 신문관은 『소년』과 『청춘』의 우편 판매 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에 있는 개별 독자들에게 『무정』을 판매했다.

이러한 방식 외에도, 지방 독자들은 가까운 곳에 소재한 서점 혹은 분매소를 통해서 『무정』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책의 발매를 담당하는 중앙지부가 지방에 소재한 서점 혹은 분매소와 특약을 맺어 거래하는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었다. 이는 1900년대부터 서적을 유통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착되었는데, 실제 중앙서관은 1908년 14개소의 지방 서점과 특약을 맺고 중앙서관에서 발행하는 서적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²¹⁾ 이러한 지방 서점 및 분매소를 활용하는 전략은 『청춘』, 『창조』, 『개벽』 등과 같은 잡지의 유통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사되었다. 단적인 예로, 신문관은 『청춘』의 유통을 위해 2호까지는 경성에만 분매소를 두었다가 6호에 이르러서는 총 12곳의 경성분매소와 13군데의 지방 분매소 및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 이후 폐간되기 직전까지 총 29개소의 분매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했다.²²⁾ 『청춘』 14호에 계

19) 『新文館發行書目』은 저자·도서명·정가·할인가·우편요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문관 발행 서적 목록이다. 이는 지방 독자들이 우편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게끔 신문관 측에서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신문관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제작된 『청춘』 14호에 삼지 형식으로 실렸다. 『新文館發行書目』, 『청춘』 14호, 1918.6.

20) 『서목』에 기재된 대로, 『개척자』의 판권은 본래 신문관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척자』는 1922년에 신문관이 아닌 흥문당서점에서 발행된다. 이로 보아 신문관이 『개척자』의 판권을 흥문당서점에 양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21)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78면.

22) 권두연, 『신문관 출판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1) - 인쇄부와 판매부를

재된 『『靑春』地方地部及分賣所設置略規』의 내용에 따르면, 신문관은 매호 20부 이상을 청구하면 『청춘』의 분매소 및 지부로 지정하였고, 이렇게 지정된 서점에 한해 도서 정가의 2할을 할인해주었다.²³⁾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신문관은 『청춘』 판매에 있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은 신문관이 『무정』의 유통에 있어서도 유사한 전략을 적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정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판권지에 찍힌 東文館이라는 서점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 東文館은 대체 어떠한 성격의 서점이었기에 신문관과 특약 거래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 새 자료 판권지에 찍힌 고무인 내용에 따르면, 東文館은 “전주시 대화정 남문통”에 소재해 있었다. 이 주소지는 조선 시대 전국 5대 시장 중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전주 남문시장 인근으로 확인된다.²⁴⁾ 1910년대 당시 남문시장 일대에는 다가서포, 문명서관, 서계서포, 창남서관, 칠서방, 완흥사서포 등 방각본을 찍어 판매했던 책방이 운집해 있었는데,²⁵⁾ 東文館도 그 중 하나였다. 다만 東文館은 한글 방각본을 찍어 판매했던 다가서포, 문명서관 등의 서포와는 달리, 식민지 초기에 발간되었던 잡지 및 서적을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243-255면 참조; 『청춘』의 분매소 현황은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81-82면 참조.

23) 『『靑春』地方地部及分賣所設置略規』, 『청춘』 14호, 신문관, 1918.6.

24) 장명수에 따르면 1473년에 처음 시장이 열린 남문시장은 지금까지 계승된 한국의 유일한 시장이다.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 全州府城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119쪽.

25) 이들 책방의 구체적인 주소지는 강혜영과 김기화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아울러 이들 책방들이 모두 남문시장 일대에 자리 잡아 완판 방각본을 출간하고 유통했었다는 사실은 이태영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92-102면; 김기화,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3, 서지학회, 2009, 183-185면;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91-115면을 참조할 것.

매입·판매했던 서점이었다. 東文館이 『창조』와 『개벽』 두 잡지의 분매소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창조』 5호의 「분매소공고」에 따르면, 東文館은 전주 지역에서 『창조』의 판매를 담당하는 분매소였고,²⁶⁾ 여기에 기재된 주소지 또한 『무정』 초판본 판권면에 찍힌 주소지(“전주 대화정 남문통”)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東文館이 『개벽』의 전주 지역 분매소로 기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개벽』 8호와 10호에 있는 「개벽분매소일람표」에서는 東文館의 주소가 “전주군 전주면 대화정 155”로 기재되어 있다.²⁷⁾ 요컨대 東文館이 『무정』을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대를 대표하는 잡지 『청춘』과 『개벽』의 분매소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해볼 때, 東文館은 전주 지역에서 문예 관련 잡지 및 서적을 주도적으로 취급했던 대표적인 서점 중 하나였을 공산이 크다.

정리하자면, 신문관에서 발행된 『무정』 초판본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즉 ① 책값과 소정의 우편료를 송금한 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송하는 방식, ② 신문관과 별도의 특약을 맺은 서점 및 분매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방에 유통되었다. 판권지에 찍힌 고무인을 근거로 볼 때, 새롭게 공개된 『초판본』은 ②의 방식으로 유통된 것임에 틀림없다. 東文館은 신문관과 일종의 ‘특약 거래 방식’을 통해 『무정』을 매입하였고, 이를 전주의 독자들에게 판매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해보자면, “20부 이상 판매했을 시 2할 할인”과 같은 특약 조건을 내걸어 『청춘』을 거래했던 것과 유사하게, 신문관은 10부 단위 이상의 특약 거래 방식을 통해 『무정』을 東文館에 유통시켰을 것이다.²⁸⁾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

26) 「『창조』 분매소」, 『창조』 5호, 1920.3., 100면.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창조의 분매소는 총 8개소(평양, 진남포, 인천, 진주, 대전, 간도 용정시, 노령포염사덕, 전주)였다.

27) 「개벽분매소일람표」, 『개벽』 8호, 1921.2.1., 110면; 「개벽분매소일람표」, 『개벽』 10호, 1921.4.1., 102면.

다. 첫째, 신문관의 입장에서 볼 때 10부 단위 이상씩 거래하는 방식은 판매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東文館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 없이 단순 우편 거래 방식을 취했다면 일정 수준의 유통마진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약 거래 방식’은 신문관과 東文館이 공생할 수 있는 하나의 도서 거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정』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東文館과 같은 지방 각지의 서점에 유통되었고, 그 결과 책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각지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혔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편판매 및 특약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에 책을 유통하고자 했던 신문관 판매부의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3. 『무정』의 판권 변동사항과 그 의미

이번에 새로운 『무정』 초판본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는 『무정』이 연재된 지 100년 만에야 비로소 식민지기에 발간된 『무정』의 판본 전체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식민지기에 『무정』의 판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정』 판본에 대한 기존 논의의 공백

28) 『청춘』처럼 20부 단위 이상 거래하는 서점을 분매소로 지정하는 관행은 1920년대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20년대 발행되었던 대표적인 잡지 『개벽』 55호의 「지분사·분매소 증설 사고」에는 “支社は 甲乙兩種에 난우어 甲種支社は 開關二百部(“新女性”과 “어린이”는 開關에 準하며, 以下皆然)以上, 乙種支社は 開關一百部以上을 販賣할 만한 責任을 갖는 이에게, 分社は 開關五十部以上을 販賣함. 分賣所는 開關이나 新女性 또는 어린이 雜誌를 十部以上 先金으로 請求하는 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처럼 『개벽』 역시 10부~50부 이상을 청구한 서점을 지분사 혹은 분매소로 지정하였다. 『支分社·分賣所 增設 社告』, 『개벽』 55호, 2915.1, 19면.

을 배우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이광수는 “불쌍한 부모님의 일, 동생들의 일, 나 자신의 기구한 어린 시대의 잊혀지지 않는 정다운 기억을 그려보고 싶은”²⁹⁾ 내적 충동에 의해 『무정』 집필을 시작했다. 하지만 1917년만 하더라도 이광수는 그 내적 충동만으로 『매일신보』의 1면을 꺾을 수 있을 만큼 문단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지 못했다.³⁰⁾ 물론 그가 『무정』, 『헌신자』 등의 단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과연 긴 호흡이 필요한 장편을 장기간 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특히나 『매일신보』에는 이해조, 조중환, 이상협 등의 소설가들이 굳건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터라,³¹⁾ 굳이 이광수가 아니더라도 신문 지면을 매워줄 작가를 섭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무정』 연재 4개월 전에 이미 이광수와 대면한 바 있었던 『매일신보』의 사장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는 이광수에 대해 두터운 신뢰감을 갖고 있었다.³²⁾ 『무정』의 연재 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³³⁾ 신문의 판매 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베의 입장에서는 이광수가 “교육 있는 청년”들을 독자로

29) 이광수, 『다난한 반생의 도정』, 『이광수 전집』 8, 우신사, 1979, 452면.

30) 『무정』은 『매일신보』에 19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월 14일까지 총 126회 연재되었다. 『무정』은 첫회를 제외하고 줄곧 『매일신보』 1면의 자리를 차지했다.

31) 유석환은 1910~1945년 『매일신보』 연재되었던 소설 목록을 정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무정』이 연재되기 전까지 이해조 15편, 조중환 6편, 이상협 4편을 각각 연재하였다. 이들의 연재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매일신보』 측에서 이들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그만큼 높았다. 유석환,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대동문화연구』 9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246-250면.

32) 최근 들어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제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베와 이광수의 만남에 관해서는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와 조선』, 소명출판, 2017, 241-280면을, 아베가 문화통치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논의로는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433-480면을 각각 참조할 것.

33) 『매일신보』, 1916.12.26~29. 3면.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이광수 또한 『무정』 연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아베의 기대에 점차 부응해갔다. 1916년 초가을에 아베를 만난 이후부터 『무정』이 발간되기 이전까지, 그는 거의 쉽없이 『매일신보』에 글을 발표하였다. 그가 남긴 「大邱에서」(1916.9.22~23), 「東京雜信」(1916.9.27~11.9), 「文學이란 何오」(1916.11.10~23), 「農村啓發」(1916.11.26.~1917.2.18.), 「教育家 諸氏에게」(1916.11.26.~12.13), 「朝鮮家庭의 改革」(1916.12.14.~22), 「早婚의 惡習」(1916.12.23.~26) 등은 그러한 정력적 집필의 결과물이다. 이렇듯 이광수는 자신이 가진 문학 적 가능성과 아베 미츠이으로부터 파생된 정치적 힘을 기반으로 『매일신보』 1면에 『무정』을 당당히 연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무정』은, 김동인이 평가가 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 그간의 문학사에서 보지 못했던 초유의 작품이었다.³⁴⁾ 아베가 기대했던 바 대로, 『무정』은 “교육 있는 청년”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고 식민지 시기 동안 총 여덟 차례나 판을 거듭할 정도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자료 3〉 식민지기 『무정』의 출판현황과 판본별 소장처

판차	발행일	발행처	저작 및 발행자	가격	소장처	기타
초판	1918.7.20	신문관·동양서원	최창선	1원20전	· 고려대도서관 · 한국현대문학관	1985년 태영사에 서 영인본 발간.
재판	1920.1.11	신문관·광익서관	최창선	1원20전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화봉경매시장(2015.8)에서 재판본을 발굴하여, 6천만 원에 매입.

34) “량에 있어서 아직껏 朝鮮에서의 初有인 것인 동시에 質에 있어서도 아직껏 朝鮮사람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이었다.” - 김동인, 『춘원연구 (3)』, 『삼천리』 7권 1호, 1935.1, 150면.

3판	1922.2.20	광익서관· 회동서관	고경상	1원80전	· 미국 서던캘리포 니아대학(USC) 도 서관	
4판	1922.5.5	광익서관· 회동서관	고경상	1원80전	· 호산방고서점 · 화봉문고	
5판	1924.1.24	홍문당서점· 회동서관	고경상	1원80전	· 화봉문고	
6판	1925.12.25	홍문당서점· 회동서관	고경상	1원80전	· 국회도서관 · 한국근대문학관 · 호산방고서점	국회도서관 원문보기서비스 가능
7판	1934.8.30	박문서관	노익형	1원80전	· 화봉문고 · 오영식 개인소장	
8판	1938.11.25	박문서관	노익형	1원80전	· 한국근대문학관 · 화봉문고	

* 각 판본별 소장처는 실사물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

위 도표에 명시되어 있듯, 식민지 기간 동안 『무정』 단행본은 총 8판까지 발행되었다. 각 판본이 발행되는 주기는 일정치 않았고 판권의 잦은 변동도 눈에 띈다. 초판과 재판은 1910년대 최고의 출판 능력을 갖춘 신문관이, 3~6판은 1920년대 초중반 영업세액 1위를 달리고 있었던 회동서관이, 7~8판은 1930년대 중반부터 규모 및 운영 면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박문서관이 각각 발행처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각 시기별로 최고의 출판사가 발행처를 도맡았다는 점에서, 『무정』이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춰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무정』의 가격은 3판 이후부터 1원 80전으로 인상되었을 뿐, 그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각 판본별 소장처가 대체로 1~2곳 정도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식민지기에 발행된 『무정』은 현재 극소수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위의 도표의 내용을 토대로 각 판본별 세부 정보를 논의하도록 한다.

『매일신보』 연재가 끝난 지 13개월 만인 1918년 7월 20일, 『무

정』은 신문관·동양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다.³⁵⁾ 『무정』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해볼 때, 당시 여러 출판사들이 판권을 얻기 위해 경쟁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무정』은 연재될 당시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작품치고는 단행본 출판이 다소 늦은 편에 속했다.³⁶⁾ 어쨌든 최남선은 이광수와와 친분을 앞세워 『무정』의 판권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무정』의 발간 또한 동양서원이 아닌 신문관 쪽에서 주도할 수 있었다. 초판본의 판권지에 저작 겸 발행자가 최남선의 형인 최창선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무정』은 우편 판매 및 분매소와의 특약 판매 전략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되었지만, 여타의 베스트셀러에 비해 그 판매 속도가 다소 더뎠던 것으로 보인다.³⁷⁾ 『무정』 초판본이 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판본이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듯, 『무정』의 판매 속도는 『장한몽』이나 『해왕성』의 그것에 비해 그 정도가 더딘 것만큼은 사실이었다.³⁸⁾ 그러나 1910~1920년대에 재

35) 초판본은 별도의 문양이나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은 채 종이 표지로 장정되어 총 1,000부 발행되었다. 앞서 초판본 표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 『무정』 초판본의 표지는 신문관에서 발행했던 여타의 단행본과는 다르게 별도의 문양이나 그림을 삽입하지 않았다. 화려한 유화(油畵) 이미지를 삽입했던 『청춘』 장간호라든지 비련의 여주인공 이미지를 삽입했던 번역서 『해당화』 등과 견주어보더라도, 『무정』 초판본의 표지 디자인은 의외로 단조롭다.

36) 참고로 『혈의 누』, 『귀의 성』, 『빈상설』은 연재 후 5~6개월 이내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는 남석순, 앞의 책, 218면을 참조.

37) 초판이 발간된 지 6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조선문단』의 이면광고에 “萬部以上 팔리기는 朝鮮出版界에 오직 이 『無情』뿐이겠습니까.”라는 책 광고가 실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6년간의 누적된 판매량을 말할 뿐이지 초판본의 판매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문단』 1호, 조선문단사, 1924. 10.

38) 당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장한몽』이나 『해왕성』은 『무정』에 비해 판매 속도가 빨랐다. 먼저, 『장한몽』의 본편은 1913년 5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119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추후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1915년 5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속편이 연재되었

판을 발행한 근대적 창작물의 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무정』의 판매 속도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³⁹⁾ 추후 『무정』의 판매량과 그 속도는 3판과 4판이 발간되었던 1922년 즈음에 급증하게 된다.⁴⁰⁾

다음으로 『무정』의 재판본은 초판이 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920년 1월 11일자에 발간되었다. 판권지를 보면 발행처는 신문관·광익서관으로 변경되었고, 저작 겸 발행자는 초판본과 마찬가지로 최창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판본의 발간 또한 신문관이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본은 초판본과 판본만 다를 뿐 제책 형태가 동일하다. 다만, 재판본의 발행처가 동양서원에서 광익서관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무정』 재판본이 발행될 시점에, 신문관의 경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⁴¹⁾ 따라서 재판본의 또 다른 발행처였던 광익서관의 자본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그 발행부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광익서관은 『태서문예신보』, 『학지광』, 『창조』, 『폐허』 등의 잡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출판사로, 이 잡지들은 모두 고경상

다. 본편의 단행본은 상·중·하 3冊으로 간행되었는데, 상권은 1913년 9월 회동서관에서, 중권과 하권은 이보다 늦은 1916년 12월 유일서관·한성서관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중권은 간행된 지 보름 만인 1917년 1월 5일에 재판을 발행했다. 그뿐만 아니다. 『해왕성』 초판(1920년 간행)도 “發行한 지 不過 幾月에 初版이 賣切에 近하얏사오니”라는 광고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 발매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완판을 앞두고 있었을 만큼 대대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장한몽』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박진영,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의 대중문예적 성격과 계보 - 『장한몽』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234-235면; 『해왕성』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동아일보』, 1922.10.31. 1면을 각각 참조.

39) 하동호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20년대 출간된 순수한 의미의 근대적 창작소설 총 32종 중 재판을 발행한 서적은 鄭馬夫(본명은 정연규)의 『魂』과 이광수의 『무정』 밖에는 없다. 하동호, 앞의 책, 20-23면.

40)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각주 51을 참조할 것.

41) 신문관의 경영 상태가 191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박진영, 『『무정』이라는 책의 탄생 전후』, 앞의 논문, 328면을 참조.

사장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고경상의 활발한 출판활동은 사실상 그의 형 고유상이 운영하던 회동서관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⁴²⁾ 회동서관은 1920년대 초반 최고의 영업세액을 지출할 정도로, 출판업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⁴³⁾ 이렇듯 회동서관을 등에 업은 광익서관을 새 발행처로 맞이하면서, 『무정』 재판본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무정』 3판(1922.2.20)과 4판(1922.5.5)은 광익서관·회동서관에서 발행되었다. 판권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는 고경상으로, 인쇄소는 고연상이 운영하는 계문사인쇄소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밝혔다시피 회동서관은 신구서림과 더불어 1920년대 초반 최고의 영업세액을 자랑했던 출판사였다. 이러한 회동서관이 정식 발행처로 등재되면서, 『무정』 3판과 4판은 초판본 및 재판본보다 고급스러운 클로스 양장으로 제책되고 가격 또한 1원 80전으로 인상된다.⁴⁴⁾ 신문관은 3판본부터 『무정』의 판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이

42) 고유상은 부친 고재홍의 가업을 물려받아 회동서관을 창립한 인물이다. 그는 계문사인쇄소와 광한서림을 설립하여 동생 고연상(1888~1960)에게 운영을 맡겼는가 하면, 회동서관의 지점으로 광익서관을 세워 막내 동생 고경상(1892~1952)을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내용은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 -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 한국출판학회, 2005, 215-252면을 참조.

43) 방효순에 따르면, 1923년 기준으로 박문서관은 100.00엔, 회동서관은 127.40엔, 광익서관은 30.00엔, 신구서림은 150.00엔을 영업세로 납부하였다. 회동서관과 광익서관이 고유상-고경상 형제가 협업했던 곳이라는 점, 그리고 회동서관이 1923년경 신생활사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42.00엔을 영업세로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회동서관 계열 출판사는 도합 200.00엔에 육박하는 금액을 영업세로 납부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회동서관은 당시 출판업계의 거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논의는 방효순, 앞의 논문, 45-59면을 참조.

44) 『광고』, 『동아일보』, 1922.10.31. 1면. 광고에 따르면 4판은 클로스 양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파이블식 美本洋裝'으로 제책되었다. 아울러 3판과 4판의 장정을 확인해본 결과, 두 판본은 동일한 재질의 장정을 갖추고 있었다.

는 최남선의 신변상 변화와 신문관의 악화된 경영상태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최남선은 3·1운동으로 투옥되어 있으면서 조선 민족의 기원과 고대사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21년 출옥 이후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신문관을 동명사로 개명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남선은 광익서관과 나누어 가졌던 『무정』의 판권을 회동서관과 광익서관 측에 완전히 양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정』의 5판(1924.1.24)과 6판(1925.12.25)은 홍문당서점이 새로운 발행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홍문당서점은 1920년대 초반에 설립된 신흥 출판사로,⁴⁵⁾ 1920년대 초·중반 『무정』을 비롯하여 이광수의 저작 중 상당수를 발행하였다.⁴⁶⁾ 사실

45) 방효순이 정리한 '일제시대 출판사 및 서점' 목록을 보면, 홍문당서점의 존속년도는 1923~1929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의 『개척자』 초판이 1922년에 홍문당서점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홍문당서점의 설립년도는 1923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홍문당서점에서 발행된 서적(이에 관해서는 각주 47의 내용을 확인할 것)들의 판권지를 확인해본 결과, 홍문당서점은 적어도 1930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문당서점의 존속년도는 방효순, 앞의 논문, 191면을 참조.

46) 『무정』 5판과 6판을 비롯하여, 1920년대 발간된 이광수의 단행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반 이광수 저작이 홍문당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김종수의 논문 『일제 식민지 근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의 111-113면에 있는 <일제 식민지 시기 발행된 이광수의 단행본 목록>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서명	발행출판사	최초 간행 년도	저작 및 발행자	비고
무정	홍문당서점· 회동서관	1918	고경상	5~6판 홍문당서 점·회동서관 발행
개척자	홍문당서점	1922	조연교	初版~4판 홍문당서 점 발행
어둠의 힘	중앙서림	1923	김병익	톨스토이 著, 이광수 譯
조선의 현재와 장래	홍문당서점	1923	조연교	初版~3판 홍문당서 점 발행

홍문당서점은 이광수의 저작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출판할 만큼 특출난 자본력이 있지 않았고, 이 서점의 사주로 기재되어 있는 조연교 또한 출판업계에서 그다지 알려진 바 없었던 존재였다.⁴⁷⁾ 이렇다 할 자본력이나 출판 이력도 없는 신흥 출판사가 어떻게 이광수 저작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출판할 수 있었던 걸까. 아래의 글은 이 문제를 해명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때는 지금으로 30여년 전입니다. 서울의 새 문안(現 西大門 町) 한모퉁이에 물질의 혜택을 풍족하게 차지한 듯 십든 큰대

춘원단편소설집	홍문당서점	1923	조연교	初版~4판 홍문당서점 발행
허생전	시문사	1924	이광수	
金剛山遊記	시문사	1924	이광수	
신생활론	박문서관	1926	이광수	
젊은꿈	박문서관	192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노익형	
재생	회동서관	192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노익형	상·하편으로 출간
一說 春香傳	한성도서주식회사	1929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한규상	
三人詩歌集	삼천리사	1929	김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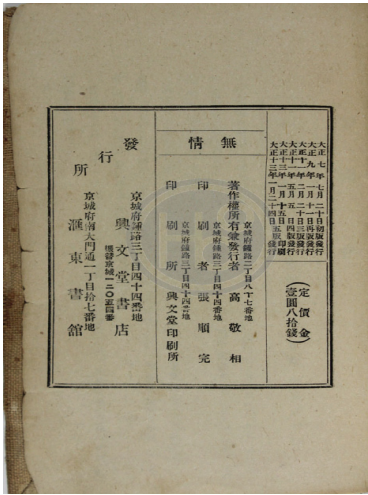
47) 필자가 과문한 탓에 홍문당서점의 규모 및 자본력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필자가 확인한 홍문당서점 발간 서적을 보면, 홍문당서점은 대중적인 작품의 판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만한 규모나 자본력을 못 갖췄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민지기에 홍문당서점에서 발간된 서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이광수의 『무정』과 『개척자』는 제외). ① 박현환 편, 『(提要)東洋史』, 1923. ② 문추 저, 조순원 편, 『睡隱集』, 1929. ③ 허목 저, 허진 편, 『金石韻府』, 1929. ④ 허목 저, 허진 편, 『古文韻考』, 1929. ⑤ 오달제 저, 오계환 편, 『吳先生忠烈公遺稿』, 1930. ⑥ 김재식 저, 『松菴集』, 1930. ⑦ 井口祐太 저, 『蒸氣機關車提要 : 及附錄』, 1930. 이 목록을 토대로 볼 때, 홍문당서점은 주로 조선 시대의 古文 내지는 문집을 복원·발간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정』이나 『개척자』 외에는 대중적이고 근대적인 작품을 발간한 경우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홍문당서점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판권을 매입하거나 책을 발간했던 출판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문집이 이것스니 그 속에는 아름다운 아가씨 네분이 곱게 자라고 이것습니다. (……) 네 아가씨 중에 제일 큰아가씨는 「큰애기」, 둘째아가씨는 「둘재애기」, 셋째아가씨는 「셋재애기」, 넷째아가씨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되는 許英蕭 씨랍니다. (……) 씨의 큰형임 되시는 「큰애기」는 벌써 50세가 되어서 아들 삼형제를 다리고 忠北 天安에서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질이 그리운 줄 몰고 오복이 가즌 살림사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둘째형임—「둘재애기」는 서울 종로 三丁目에서 아들 하나와 두 딸의 어머니—연세는 45才의 중노인으로 부군은 興文堂印刷所를 경영하고 잇답니다.⁴⁸⁾ (강조와 밑줄은 인용자)

위의 글은 허영숙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허영숙의 둘째 언니가 서울 종로 3정목에서 살고 있고 그 부군이 흥문당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즉, 흥문당 인쇄소의 사주가 바로 허영숙의 형부였던 것이다. 『무정』 5판의 판권지를 보면, 흥문당인쇄소와 흥문당서점의 주소는 “경성부 종로 3정목 44번지”로 동일하다. 결국 흥문당서점과 흥문당인쇄소는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회사였던 셈이다. 사실 허영숙의 형부가 판권지상에서 인쇄자로 기재된 ‘장순완’인지, 아니면 『개척자』(1922), 『조선의 현재와 장래』(1923), 『춘원단편소설집』(1923)의 판권지상에서 저작 및 발행자로 기재된 ‘조연교’인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 발간된 이광수의 저작 판권을 조연교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허영숙의 형부는 ‘장순완’이 아니라 ‘조연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무정』 5판과 6판의 발행처가 흥문당서점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초판부터 6판까지의 판권 이전에 관한 궤적을 서사화해보자면 다음

48) 『名門따님 5형제 행진곡』, 『삼천리』 4권 2호, 1932.2. 55-56면.



〈자료 4〉 『무정』 5판본(화봉문고 소장)의 판권지. 저작 겸 발행자는 高敬相, 인쇄자는 張順完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권지상에 기재된 흥문당인쇄소와 흥문당서점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과 같다. 이광수는 1918년에 최남선·최창선 형제에게 일정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무정』의 판권을 양도했다. 당시의 출판 관행을 고려해볼 때 신문관이 이광수와 상의 없이 판권을 다른 출판사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자인 이광수와 판권자인 신문관 사이의 도의적 문제일 뿐 법률상의 큰 분쟁을 일으킬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⁴⁹⁾ 더군다나 『무정』의 판권이 신문관에서 광익서관·회동서관으로 이전되었을 당시(1918~1921년 사이)에 이광수는 일본과 상해를 떠돌고 있었다. 이처럼 신문관은 판권 이전에 관해 이광수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건

49) 『무정』이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1909년 2월 23일에 제정된 출판법이 준용되었다. 출판법 3조 ①항과 ②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官廳의 文書 圖畫 혹은 講演의 筆記를 出版하고자 할 때, 혹은 著作權을 가진 他人의 著作物을 出版하고자 할 때에는 前條의 申請書에 該官廳의 許可書 혹은 演說者, 講義者, 著作者, 著作權者의 承諾書를 添附할 것을 要함. ②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許可 혹은 承諾을 얻은 자를 著作者로 看做함.”(出版法, 法律 제 5호, 隆熙 3년 2월 23일) 이 내용에 따르면, 저자에게서 승낙을 얻은 자는 저작자로 간주될 수 있고, 추후에라도 저작권을 가진 자 혹은 출판사에게 허가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신문관은 이광수에게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문관이 『무정』의 저작권을 여타의 출판사에 매매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광익서관·회동서관 측에 『무정』의 판권 전체를 양도하게 되었다. 1921년 상해에서 돌아온 이광수는 『무정』의 판권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출판사에 이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정』의 판매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수익을 전연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뒤늦게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판권에 대한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훗날 그가 “내가 문인으로 고료도 상당히 받았다 하겠습니까. 그 중 『무정』이 가장 많이 팔리었으나 어떤 친구가 나의 승낙도 없이 팔아 먹었기 때문에 『무정』과는 그야말로 무정하게 되었고”⁵⁰⁾라고 슬회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그에 따라 상해에서 귀국한 이광수는 자신의 저작권을 허영숙의 둘째 형부가 설립한 홍문당서점을 통해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대 최대의 출판사였던 회동서관·광익서관이 『무정』의 판권을 쥐고 있었고 『무정』 3판과 4판이 엄청나게 팔렸던 상황인 터라,⁵¹⁾ 신흥 출판사에 불과했던 홍문당서점 측에서 그 판권을 매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광수는 허영숙의 둘째 형부가 운영하는 홍문당서점을 발행소로 지정

50) 이광수, 『나의 문단 생활 30년』, 『이광수 전집』 10, 우신사, 1979, 590면.

51) 『무정』 4판은 3판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발행되었다. 물론 현재로서는 『무정』 3판이 몇 부 간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정』만이 만 부 이상 팔렸다는 『조선문단』의 광고(1924.10)를 고려해본다면, 『무정』 3판은 초판본에 준하는 1,000부 내지는 그 이상의 부수를 발간했을 공산이 크다. 『무정』의 각 판본별 발행일, 이전 판본과의 발행일차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판차	발행일	이전 판본과의 발행일차	판차	발행일	이전 판본과의 발행일차
초판	1918.7.20	-	5판	1924.1.24	약 20개월
재판	1920.1.11	약 18개월	6판	1925.12.25	약 23개월
3판	1922.2.20	약 25개월	7판	1934.8.30	약 116개월
4판	1922.5.5	약 3개월	8판	1938.11.25	약 51개월

하는 정도의 선에서 『무정』의 판권 문제를 봉합하였고, 1922~1923년 사이 새롭게 출간된 자신의 저작-『개척자』(1922), 『조선의 현재와 장래』(1923), 『춘원단편소설집』(1923)-에 대한 판권을 모두 홍문당서점의 사주 조연교가 독점하게끔 하였다.⁵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홍문당서점은 『무정』 5판(1924)과 6판(1925)의 인쇄소로 새롭게 등장했을 뿐 아니라, 1922년부터 1923년까지 발간된 이광수의 저작에 대한 판권 계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렇다 할 출판이력이나 자본력이 없었던 홍문당서점이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이광수의 저작을 이렇게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허영숙이라는 매개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영숙과 함께 상해에서 돌아온 이광수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정』의 판권자가 자주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이 시기 『무정』 3판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했지만,⁵³⁾ 그에 따른 판매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광수는 뒤늦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허영숙의 둘째 형부가 운영했던 홍문당서점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무정』의 5판과 6

52)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부기하도록 한다. 1924년부터 이광수의 새로운 저작들은 홍문당서점이 아닌 여타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특히 1930년에도 홍문당서점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이광수의 선택은 다소 의외라 할 만하다. 그가 더 이상 홍문당서점과 판권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가 1924년부터 새로 출간되는 자신의 저작들에 저작자 혹은 발행자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새겨 넣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924년부터 1936년까지 발행된 이광수의 저작 14권 중 『三人詩歌集』(1929)과 『李舜臣』(1932)을 제외한 12권의 판권지에는 이광수의 이름이 저작자 혹은 저작결발행자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1923~1924년 사이 판권과 관련하여 이광수와 홍문당서점 간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53) 앞서 언급했다시피, 3판이 발행된 지 약 3개월 만에 4판이 발행되었다. 그 정도로 『무정』 3판의 판매 속도는 엄청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이광수가 상해에서 돌아온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관이 흥문당서점을 통해 발행되었고, 『개척자』와 『조선의 현재와 장래』, 『춘원단편소설집』 등의 여타 저작들 또한 특별한 판권 변동 없이 약 8년 간 흥문당서점에서 안정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정』의 7판(1934.8.30.)과 8판(1938.11.25)은 1930년대 사세를 급격히 확장시킨 박문서관에 의해 발간되었다.⁵⁴⁾ 『무정』의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동서관이 1927년부터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⁵⁵⁾ 1920년대 후반부터 최대의 민간 출판사로 올라서게 된 박문서관이 『무정』의 판권을 매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책 상태를 확인해보면 7판은 클로스 양장, 8판은 하드커버 양장으로 되어 있다. 두 판본 모두 박문서관의 사주 노익형이 저작 겸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가격은 1원 80전으로 이전 판본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무정』 6판이 발간된 시기가 1925년이었으니, 6판 발간 이후 대략 9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7판이 발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의 인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大正 7年 초판이 간행된 이래 오늘까지 二十有餘年 版을 거듭하고 거듭하여 실로 七萬部를 돌파하고 오늘도 또 다시 새로운 독자를 획득하며 있다.”⁵⁶⁾ 라는 광고가 『무정』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여전했음을 잘 웅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萬部 以上 팔리기는 朝鮮出版界에

54) 1930년대 박문서관의 영업세액 추이를 보면, 이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문서관의 영업세액은 1931년에 126.43엔, 1936년에 190.79엔, 1937년에 187.27엔, 1939년에 331.11엔, 1940년에 480.06으로 증가했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4배 가까운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 京城商工會議所 編, 『京城商工名簿』, 해당년도 재구성(김중수, 『일제 식민지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 박문서관 활동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464면에서 재인용).

55) 회동서관은 1926년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의 『재생』, 양백화의 『빨래하는 처녀』의 출간을 마지막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사실상 192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국, 앞의 논문, 238면 참조.

56) 『박문』 2, 1938.11, 24-25면 광고. 최주한은 이 광고를 근거로 하여 7판본이 여러 번 증쇄했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최주한, 앞의 논문, 251면 참조.

오직 이 『無情』뿐이겠습니다.”라는 『조선문단』의 광고가 실린 때가 1924년 10월이었다. 만약 이 두 광고가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면, 『무정』은 5권부터 7권까지 약 10년 간 무려 6만 권이 판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무정』은 1918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부터 1938년 8권이 발행되기까지 약 20년 간 한국 근대문학사에 길이 남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로써 『무정』은 “新文壇建設의 第一礎”⁵⁷⁾라는 존재론적 위상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⁵⁸⁾

4. 결론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간 우리는 표지와 장정을 온전히 갖춘 『무정』 초판본을 갖지 못한 채 문학사를 기술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무정』 초판본은 중요한 서지적 가치를 지닌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새 자료 『무정』 초판본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새 자료의 발굴을 통해 식민지기에 발간된 『무정』의 판본 전체가 확보되었던 만큼, 『무정』의 초판본부

57) 『무정』 광고, 『청춘』 15, 1918.9.

58) 『무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출판 시장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유로 독서 대중의 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20~30년대는 바야흐로 문학이 문화의 중심부에 놓인 시기였다. 천정환이 잘 지적하고 있듯, 3·1운동 이후부터 근대적 학교교육이 확고한 제도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문맹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1920년대부터 신문·잡지를 구독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독서가 문화적 취미의 한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무정』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독자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20~30년대 독서 대중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은 천정환, 앞의 논문, 86-191면을 참조.

터 8판본까지 서지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해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발굴된 새 자료와 재판본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재판본과 마찬가지로 『무정』 초판본도 표지에 특별한 도안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새 자료의 판권지에 있는 東文館이라는 서적 발매소 스탬프 흔적을 근거로 하여, 『무정』 초판본이 어떤 경로로 지방에까지 유통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東文館이라는 서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무정』은 우편을 활용하여 지방에 소재한 ‘특약 판매 서점’에 유입되었고, 지방의 독자들은 이 서점을 통해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 소재한 東文館이 『개벽』과 『창조』의 분매소로 기능했을 만큼 전주 지역에서 문예 서적을 전문적으로 다룬 대표적 서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논의를 수정·보완하여 『무정』의 여덟 판본의 서지 사항 및 각 판본의 소장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에 발행된 모든 판본이 총 14곳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넷째, 『무정』의 발간 경위에 관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 즉 『무정』을 비롯한 이광수의 저작이 1920년대 초반 홍문당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간되게 된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 확인 결과, 홍문당서점은 허영숙의 둘째 형부가 운영하는 출판사였다. 그에 따라 이광수는 1921년에 허영숙과 결혼한 이후부터 『무정』의 발행처를 홍문당서점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1922~23년에 새로이 발간한 『개척자』, 『조선의 현재와 장래』, 『춘원단편소설집』 등의 판권을 홍문당서점에 넘겨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무정』 판본과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졌던 논의를 어느 정도 보강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먼저, 이광수의 『무정』이 한국 근대문학 작품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 시대에

관을 바꿔가며 그토록 오랫동안 유통될 수 있었는가. 문학사상 최초의 한국 근대장편소설로 호명되어왔던 『무정』이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문헌학적 방법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무정』의 문체, 『무정』에 내재된 작가의 인식의 유효성, 『무정』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등의 맥락들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원전 복원의 문제이다. 서지학자들이 서지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는 원전의 복원이다. 이광수의 『무정』 초판본이 매일신보 연재본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되어 온 바이다. 이광수의 개입을 통해서였든 아니든 간에, 그 이후의 판본들도 끊임없이 變改되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오늘날 우리가 읽는 『무정』과 연재본 및 초판본 사이의 거리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엄밀하게 말해,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작품과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작품은 구별되어야 한다. 『무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원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1차적인 연구 대상 텍스트로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 하에 다른 판본과의 차이와 그 의미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정』의 본래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광수, 『무정』, 신문관·동양서원, 1918.7 (초판)
 이광수, 『무정』, 신문관·광익서관, 1920.1 (재판)
 이광수, 『무정』, 광익서관·회동서관, 1922.2 (3판)
 이광수, 『무정』, 광익서관·회동서관, 1922.5 (4판)
 이광수, 『무정』, 홍문당서점·회동서관, 1924.1 (5판)
 이광수, 『무정』, 홍문당서점·회동서관, 1925.12. (6판)
 이광수, 『무정』, 박문서관, 1934.8. (7판)
 이광수, 『무정』, 박문서관, 1938.11. (8판)
 『매일신보』, 『동아일보』, 『청춘』, 『창조』, 『개벽』, 『조선문단』, 『삼천리』, 『박문』 등

2. 논문 및 저서

- 강혜영,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권두연, 「신문관 출판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1) - 인쇄부와 판매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_____,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김기화, 「『七書房』의 출판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3, 서지학회, 2009.
 김성연, 「식민지 시기 기독교 출판과 책의 유통 - 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사이(SAD)』 1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한성 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5,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9.
 _____, 「일제 식민지 근대 출판시장에서의 이광수의 위상」, 『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_____, 「일제 식민지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 박문서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 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 김철,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3.
- 남석순, 『근대소설의 형성과 출판의 수용미학』, 박이정, 2008.
- 박상균, 『개화기 ‘책거간’ 고 - 도서유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77.
- 박진영,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의 대중문예적 성격과 계보 - 『장한몽』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_____, 『『무정』이라는 책의 탄생 전후』,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 심원섭, 『아베 미쓰이에와 조선』, 소명출판, 2017.
-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 독자의 형성과정』,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 유석환,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변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대동문화연구』 9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유태환,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이경현, 『1910년대 신문관의 문화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논문, 2013.
- 이승우, 『개화기 출판·서적계를 가다』, 『출판저널』, 1993.10.5.
-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 -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 한국출판학회, 2005.
-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 全州府城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 전은경, 『『대한매일민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_____, 『잡지 『소년』의 기획과 독자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 천정환, 『한국 근대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최주한, 『『무정』 100년의 계보를 읽는다』, 『근대서지』 13, 근대서지학회, 2016.
- 태영사 편집부 편, 『한국현대소설총서 1: 무정·홍염·배회』, 태영사, 1985.
- 하동호, 『한국 근대문학의 서지연구』, 깊은샘, 1981.
-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학보』 22 권 3호, 일지사, 1996.
- R. Escarpit,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민병덕 역, 『출판·문학의 사회학』, 일지사, 1999, 9면.



<Abstract>

A Bibliographical Research on the editions of
‘Moojeong’
—Focused on the newly discovered first-edition
of ‘Moojeong’—

Lee, Man-Young

Although it's been 100 years since ‘Moojeong’ was published in book form, we have described the history of literature not procuring the first-edition of this book with cover entirely. However, Korea University Library has made public recently the first-edition of this book which maintains its condition when it was published in 1918. As the intact first-edition with its cover was revealed, we could secure the whole edition of ‘Moojeong’ entirely from first edition to the 8th edition which were publish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irst,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first-edition of ‘Moojeong’ which is a new material. This newly released material has differences in two aspects, compared with the existing first-edition that Museu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possesses and which was the edition published by Taeyeongsa publisher and printed the first-edition in which a bibliographer, Mr. Kim Jong-wook owned. First, since the condition of book and its cover are in an excellent state of preservation unlike the existing material, its board and case are still completely intact as it used to be when it was published. Second, there is a stamp



of publisher, Dongmungwan(東文館) which is located in Jeonju-si, Jeonbuk on paper on the contrary to existing material. Thu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hysical difference between the second edition that National Library of Korea possesses and the first-edition of ‘Moojeong’ which was unearthed this time and surmise how the first edition of this book was distributed.

In addition, this study arranges the publication right history of ‘Moojeong’ and organizations where house each edition of this book. As mentioned earlier, the public release of this material leads to secure the whole edition of ‘Moojeong’ which was released in Japanese colonial era. Therefore, the previous discussion was referred and supplemented and bibliography of edition of ‘Moojeong’ and organizations where house each edition are arranged. In the meantime, the unrevealed problems on how ‘Moojeong’ was published, which means why Lee Gwangsu’s writings including ‘Moojeong’ were published intensively in Heungmundang-bookstore(興文堂書店) in the early 1920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hus, this study proves that it’s related with Heo Yeongsuk.

Key words: Lee Gwangsu, Moojeong, first-edition, Korea University Library, Dongmungwan (東文館), Heungmundang-bookstore(興文堂書店), Heo Yeongsuk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7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